# ‘새정치 한다더니…’ 구태 공천심사 논란

## 새정치 광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심사 돌입

## 국회의원 보좌관 등 실사 참여 ‘입김’ 작용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광역·기초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지만, ‘구태(舊態)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겉으로는 새정치와 개혁공천을 외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후보자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절반 가량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인사들로 꾸려지는 등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2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공모를 전날 마감한 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예비후보들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는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과 지역의 여론과 민심을 탐문하는 실사(實査)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시당은 광주시 각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별로 2인1조로 구성된 2개팀을 투입해 면접과 실사를 동시에 벌이고 있다.

각 자치구에 투입된 실사팀은 민주당 계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과 시당 당직자, 새정치연합 측 추천 인물 등 4명으로 구성됐다.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로 투입돼 실사를 진행중이다. 이들이 벌이고 있는 심사는 경선에 앞서 후보를 압축하기 위한 ‘컷오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지역정치권의 분석이다.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각 선거구별로, 컷오프를 통해 경선 후보를 3배수로 압축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사’는 예비후보들에겐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다. 또한, 이번 심사가 적합도·경쟁력 부문에서 30점의 배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 후보들에겐 중요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각 자치구별 심사위원 절반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 이번 심사에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실사보고서가 경선의 1차 관문인 ‘컷오프’와 경선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일부 예비후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시당 공천심사위원회 참여 배제를 강력히 주장해왔다.한 광역의원 출마예정자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국회의원들이 공천심사위원이고, 경선에 앞서 진행되는 실사 자체도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데,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당 관계자는 “지역 실사팀 4명 중 1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후보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거운 새정치 22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왼쪽부터), 우원식 대책위원장,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박병석 국회 부의장 등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인구 148만8467명

## 전년보다 4759명 늘어…하루 35명 출생·9명 사망

## 경제활동 72만9000명·취업자수 2만3000명 증가

### 2013년 통계 기준

광주시의 인구와 취업자, 수출규모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시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작한 2014년 광주시정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인구는 148만8467명으로, 전년도인 2012년 148만3798명보다 4759명(0.32%)이 늘었다. 외국인도 1만4492명에서 1만5557명으로 1065명(7.35%)이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는 72만9000명으로 전년도 70만4000명보다 2만5000명이 늘어났고, 취업자 수도 70만8000명으로 전년도보다 2만3000명이 증가했다.

지역 내 총 생산액도 26조77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779억원(2.21%)이 늘었다. 수출액도 141억3291만 달러에서 158억6761만달러로 12.3%나 상승했다.

시의 예산 규모는 3조6180억원으로 전년도 1867억원(5.4%) 증가했다.

공식 등록한 자원봉사자 수도 전년보다 8만8324명이 늘어난 41만4253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광주의 하루 〈2013년 기준〉

교통사고 발생량은 8560건에서 8007건으로 6.46%나 감소했다.

‘광주의 하루(1일)’를 살펴본 통계에선 매일 35명이 출생하고, 9명이 사망했다. 혼인은 24쌍, 이혼은 8쌍이었다. 하루 평균 46만8000명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했으며, 자동차는 47대씩 등록됐다.

건축허가는 13동씩 이뤄졌으며, 화재는 3건씩 발생했다.

물 사용량은 39만5000㎥, 전력사용량은 2만2668MWh였다. 도시가스도 163만9000㎥를 사용했으며, 석유류소비량은 2559㎘에 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전남 현역 기초長 3~4명 ‘탈락’ 예상

## 새정치, 오늘 예비후보 명단 통보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 470명 가운데 부적격자 30여명을 1차로 걸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적격 예비 후보 가운데 전남 기초단체장 2명, 광주 기초단체장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천정배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은 지난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부적격자 현황을 보고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 부적격자 명단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23일 각 시도당에 부적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 후보 명단을 통보, 2단계 공천심사를 진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23일 오전에는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지역별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 명단이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현역 단체장은 서울 1명, 경기 1명을 비롯해 전북 2~3명, 광주·전남 3~4명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만간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인 현역 기초단체장 1~2명은 조건부로 공천대상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결과에 따라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측은 “이번 부적격자는 중앙당 차원에서 솎아낸 1차 대상자”라면서 “3선 연임제한 및 자발적 불출마자 9명과 향후 경선과정에서 탈락하는 현역 단체장을 포함하면 현역 단체장의 최종 물갈이 비율은 20%를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새정치연합 전남지사 경선 후보 기호 배정

## ①이낙연 ②이석형 ③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3명의 전남지사 경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기호 추첨을 해 이낙연 후보에 1번, 이석형 후보에 2번, 주승용 후보에 3번을 각각 배정했다.

경선 후보 대리인이 참석한 이날 추첨에서는 또 공론조사 시 정견발표 순서를 이낙연, 주승용, 이석형 후보 순으로 하기로 했고 공론조사 토론회 답변 순서는 주승용, 이낙연, 이석형 후보 순으로 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정치 광주시당 예비후보 경쟁

## 광역의원 5.3대 1, 기초 1.8대 1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광역의원 예비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5.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기초의원은 1.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역의원(광주시의원) 예비후보 공모에 102명이, 기초의원(구의원) 예비후보 공모에 108명이 등록했다. 광주시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석 수가 19석임에 따라 5.3대의 경쟁률을 보였고, 총 59석인 동·서·남·북·광산구 등 광주 5개 자치구의회의 예비후보 경쟁률은 1.8대1 이었다.

광역의원 예비후보의 경우 서구 4선거구(상무 2, 서창, 금호 1·2동)가 9명이 몰리면서 9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이어 서구 3선거구(화정 3·4, 풍암동), 광산 1선거구(송정 1·2동, 도산,어룡, 삼도, 동곡, 본량, 평동)가 8명이 서류를 제출해 8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최권일기자 cki@

## 지방선거 출마자 추가 공모

## 새누리 광주시당, 28일까지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재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비례대표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공모’도 실시한다.

새누리당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허정)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존 후보 등록 지역구를 제외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에 대한 추가 공모 및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기로 의결했다.

추천신청 기간은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6일간 이며, 신청서는 새누리당 광주시당 홈페이지(http : //gwangju.saenuri-party.kr)에서 내려 받아 시당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